

계절은 감로(甘露)의 길이 되고, 방일은 죽음의 지름길이 된다.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도를 잃으면 스스로 죽게 된다.

법규경 · 방일품 177절

제1303호 2000년 (불기 2544년) 10월 2일 월요일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upress.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7가 26 (02)2260-3491~2 FAX(02)2279-1270/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4)770-2057

동국축구 전국 제패

최우수 선수 안효연 · 득점왕 한정환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가 '제55회 전국남녀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본교는 지난달 27일 안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울산대를 2대0으로 꺾고 1970년 이후 30년만에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날 경기에서 본교는 전반 30분 한정환(국문2)이 정재운(국문3)의 오른쪽 센터링을 받아 찬 공이 왼쪽 골포스트를 맞으며 골인되어 선취점을 얻었다. 본교는 이후 울산대의 맹렬한 공격에 밀리는 듯했으나 후반 46분 안효연(체교4)의 빠기 골로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최우수선수에 안효연이 선정되었고, 이날 선제골을 비롯한 4골을 넣은 한정환은 득점왕을 차지했다. 또한 구대령(체교3)은 최우수 수비상을, 남민호(법학2)는 골키퍼상을 받아 개인부분상도 휩쓸었다.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대학 34개팀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른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한라대, 한양대, 전주대, 배재대를 차례로 물리치며 결승에 올라,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울산대를 눌러 우승컵을 안게 되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승기 감독(경영73졸)은 우연히도 30년 전 본교 우승의 주역이었으며 감독으로 부임한 후 30년간

에 또 다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또한 97년 부임 때부터 자신만의 지도방식으로 98년에는 '불철대학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감독 코치(사회 90졸)는 "이번 우승은 감독과 선수가 하나 되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소감을 대신했다. 최우수 수비상을 받은 구대령 선수는 "선·후배가 친구같이 지내는 팀 분위기가 경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총동창회(회장=권노갑)는 지난달 27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회를 열어 감독과 선수들을 격려했다.



축구부가 지난달 27일 결승전 경기 후 행가래를 하며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지면안내

공간문화	7면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중 불평등 조항고찰	4면
민중화운동 보상법	5면

보리수

날마다 좋은 날

정성본 (불교문화대 선학)

'백암록'에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란 운문선사의 설법이 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서 달리 해석하거나 설명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인사말을 나누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인사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하루의 삶이 우리들 인간의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 되기 때문이며,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매일 매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하루를 살수 있을까? 먼저 자신에게 반문하고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

우리들이 매일 좋은 날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각자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루는 지금이라는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일에 정진하려 최선을 다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일에 몰입(沒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의미 있고 보람찬 좋은 하루의 삶이 한 달과 일년, 아니 일생을 좋은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인가?

직업을 통한 전문적인 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전개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 결코 머무르고, 앉고 눕는 일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조용히 앉아 있는 일 뿐만 아니라, 식사하고 웃고 울고 용변보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보살도 등 지금 여기서 순간 순간에 실행하는 자신의 일상생활 모든 일을 말한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루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충만한 보람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 존재의 존귀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박물관, 고급유물 훼손 우려

습기·빛 노출 무방비 ... 대책마련 시급

본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

본교 박물관은 청화백자승족 문호와 남석삼존불비상 등을 포함해 국보 2점과 보물 9점이 있으며, 이 밖에 역사적·교육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유물 3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과 전시공간 부족 등 여러 제반 여건 부족으로 현재 전시 중인 유물은 100여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유물들은 시설과 장비 부족 등으로 보존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향은·향승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박물관 내부는 지난 장마 때 찬 습기를 제거하지 못해 유물 보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명으로 일반 형광등을 사용해 종이의 같이 빛에 민감한 유물이 빨리 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훈철 박물관 전임연구원은 "최근 개·보수공사

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습기가 생긴다"며 "장비를 구입해야 하지만 장비 가격이 박물관 일년 예산과 맞먹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철씨는 또한 "박물관에 대한 지원과 학생들의 관심이 합해질 때 박물관이 본교의 특색을 살린 불교 박물관으로 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물관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2001학년도 입학전형

문예창작 예술대로 모집단위 변경

본교 200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이 시작됐다.

서울캠프 정시모집 입학 전형일정은 '나'군으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은 인문계열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55% △논술 3% △면접 2%이며, 자연계열은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58% △면접2%이다. 그리고 야간 인문·자연계열은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60%이다.

올해는 지난해 본교 신입생모집에서 불교대학 신입생이 동점 처리된 관계로 1명 증원되어 총 모집정원이 2천9백40명에서 2천9

백39명으로 1명이 감원조정됐다. 그리고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전공이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로 모집단위가 변경되면서 모집정원이 20명으로 5명 증원됐다.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아시아지역학전공은 국제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모집정원이 35명으로 5명 감소했다.

뿐만아니라 외국어우수전형에 TEPS 시험응시자를 추가했으며, 지원자격을 △TOEIC 800점 △TOFLE 660점 △TEPS 750점 이상으로 조정, 지난해에 비해 강화했다.

지난 9월 18일(1301호) 중기상 산하기 심사 5위를 1위로 정정합니다.

본교, 노인복지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참사랑봉사단(단장=송석규·철학)은 오는 6일 노인복지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구 관내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 가정 매일 후원 △명절 때 불우이웃을 초대해 사랑의 나눔잔치 △봉사단원들의 정기적인 방문봉사 △무의탁 노인 공원안내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본사사령

- ◇ 임수습기자
- ▲김민철 (인문과학대 1)
- ▲정윤미 (인문과학대 1)
- 이상 10월2일자



사진/김도영 기자

인터뷰 -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

양적 평가 쫓기보다 교육의 내실 기할터

에 의구심이 든다.

-종합평가 부문 중 재정부문의 긍정적 평가는 받은 반면, 평판도 부문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교가 재정부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중앙일보가 정한 △수입 중 납입금 비중 △학생지원율 △중도포기율 △학생당 교육비 등의 세부지표 가운데 학생지원율이 높고 중도포기율은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판도는 조사시기, 조사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과평가 결과, 영문학과는 교수부문 2위와 종합 9위를 차지해 순위 안에 든 반면, 법학은 교육여건 13위와 교수연구실적 11위, 전기전자계열은 교수연구 11위로 종합순위 안에는 들지 못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학생부문의 평가는 주요 기준을 졸업생의 진로가 학과 특성을 얼마나 반영했는가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영문학과는 그다지 많은 동시 통역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법학과 역시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계산고시학사를 법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학습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노력도 평가에서 배놓을 수 없는 요인을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평가 기준이 정량적인 부문에 치우쳐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이 있다면.

=당장 정량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과학캠퍼스로 구성된 제3캠퍼스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량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전문·특수대학원을 신설하거나 시설·건물 공사를 하는 등 양적인 팽창에만 치우쳐 왔다. 하지만 이제 교수확보율을 늘려 수업의 질과 양을 확보하는데 힘쓰는 등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00년 민족통일대행진

문산-임진각 행진할때 화합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 (단체상, 모범상, 조별상, 개인상 등) 시상합니다

-대동놀이-

줄다리기(단체팀별 대항전), 널뛰기(팀단체별 여학생 대표), 단체 줄넘기(10인 1조), 투호(개인별 대항)
임진각에서 통일조형물 경연대회
통일 심행사 대회
통일 대통령 선발대회

주최:민족통일 32대 자주적 총학생회 후원:학생처 학생복지실

발전기금 ARS 7000-119

- 일 정: 2000년 10월 11일 오전 10시 대운동장 출발
- 장 소: 문산-임진각
- 접수방법: -과, 학부별 30인 이상 단체팀 구성
-향우회, 동아리 10인 이상 단체팀 구성
-팀별 5인이 1개조
-개인별 참가 가능
-교수님이나 조교 참가시 우선점수 부과
- 접수기간: 9월 25일~10월 6일
- 접수장소: 과(학부)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

중도, 독서상·봉사상 한천희 외 3명 시상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지난달 26일 모범독서상과 모범봉사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했다. 도서관 이용과 반납기간 준수를 기준으로 하는 모범독서상에는 한천희(영화4)와 정성운(일문4)학생이 선정됐으며, 도서관 근로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봉사상은 박현아(행정3)와 김하원(건토2)학생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기념패와 부상으로 도서상품권 10매가 수여됐다.

야총 남산골 한마당 5일 전야제 6일 본마당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유승우·아시아지역4)는 오는 5일부터 이틀간 '과학생회 강화와 혁신'을 기점으로 '남산골 한마당'을 개최한다. 오는 5일 진행되는 전야제는 축구, 농구 등 '별들의 운동회'의 종목별 결승전이 진행되며, 이와 함께 단체 행사가 열린다. 또한 6일 개최되는 본마당은 '별들의 운동회'와 '통일공기공모전' 시상식, 교수님 노래자랑이 펼쳐지며, 중·고교 동문, 직장동료 장기자랑도 벌어질 예정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양중문박사 초청 불교학술세미나 개최

불교문화연구원(원장=복정배·불교학)은 오는 6일 오후 3시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초청 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중국문화에 끼친 불교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동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양중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불교연구실 주임 겸 연구원생 박사지도 교수가 강연한다.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 오는 9·10일 양일간 실시

학생상담실(실장=고진호·교육학)과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병남·무역4)는 2000학년도 2학기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늘(2일)부터 6일까지 학생상담실 또는 중앙도서관 앞 접수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비는 3천 원이며 검사해석과 상담은 무료이다. 이와관련해 학생상담실 이영희상담원은 "이번 검사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강의실 나올때 형광등 끄세요”

에너지 절약운동 ... 연 4천만원 절감기대

유가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 학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사무처(처장=황영수)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강의실과 연구실 형광등 소등 △컴퓨터 전원 끄기 △개인용 전열기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사무처는 지난 98년부터 교내형광등을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가로등에 자동 타이머를 설치하여 약 30%의 에너지를 절감해왔다. 시설관리팀 조성문 과장은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내에 설치된 형광등의 수는 약 4만5천개, 컴퓨터는 약 4천대 정도이다. 여기에 실험기자재와 기타 전기기구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모두 합하면 전기요금은 한달 평균 7천만원에서 8천만원 가량이다. 뿐만 아니라, 교내 곳곳에 있는 사무실이나 연구실의 에너지 낭비도 심각하다. 점심시간이나 외출할 때에 형광등과 컴퓨터를 켜둔 채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 학교는 사무실이나 연구실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보안과 절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구성원들이 에너지 절약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일상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빈 강의실에 켜져 있는 형광등을 하루 한시간만 꺼두면 연 2천만원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한시간만 꺼놓을 경우에는 연 1천7백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에너지 절약운동 외에도 사무처는 지난 97년부터 '동국인 생활경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해오던 승용차 10부제 운동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하반기 대의원 총회

5일 중강당에서 회칙 개정 논의

총대의원회(의장=채진석·경제4, 이하 총대)는 오는 5일 오후 3시 2000학년도 하반기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연다. 중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상반기 사업보고 △총여학생회 회칙 개정 공고 △총대 회칙 개정 △생협독립법안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총대는 지난 99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회칙안에 대해 △학부·전공 대의원회 구성 △집행국 산하 감사국 구성 △총대 정·부 의장 출마자격 중 4개 단과대학 이상의 20인 이상이 추천하도록 변경 △대의원 선거를 매학기 진행하나 연임가능의 내용으로 새로 마련했다.

열린동연제 오는 4일부터 3일간

동아리연합회(비대위원장=이해연·사회3)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동연제'를 개최한다. '다시함다(多視 息多)'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동연제는 △상설무대 공연 △시연 △영화제 △예치분과 전시 △추억의 테이블 게임 △신토 불이 3종 경기 △외의카페 △체전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공용컴퓨터실 학생증 인증시스템 도입

학생증 있어야 컴퓨터 이용 가능

앞으로 학생증 없이 공용 컴퓨터실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이달 말부터 공용컴퓨터실의 모든 컴퓨터에 학생증을 이용해 본교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공용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부착된 인식기에 학생증을 꽂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용컴퓨터실에서 외부인의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정보관리실에서 컴퓨터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장난 컴퓨터를 바로 수리하는 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증시스템의 실시로 사이버 범죄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인증시스템을 실시하기 전 누군가 본교 컴퓨터를 통해 모 회사 홈페이지에 욕설을 올려 본교 담당자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해진 기자
atom@dongguk.edu

어플리케이션, 해킹, 음란물, 명예훼손, 통신 사기 등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생증인증시스템의 도입으로 정보관리실이 개인의 컴퓨터 사용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얼마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과대의 한 학생은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종욱 정보관리실장은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증을 분실한 학생들은 재발급 받을 때까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욱 실장은 "조금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학생들이 인증시스템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전무대

사리찾아 삼만리

0...신설된 어학실습실을 도서관 열람실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알아보니, 실습실 내 오디오 장비가 갖춰진 몇 안되는 자리에 학생들이 한번 앉으면 그날 하루 지정석인 양 차지하고 있으니. 다른 학생들은 일찍 온 학생들의 지정석(?)에 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도서관 버릇 어학실습실까지 간다?!"

빠때루 관중

0...개장 시 깨웠던 다량관 휴게실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데. TV를 통해 시드니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던 학생들이 경기에 열중중 나머지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탓이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빈 캔이나 과자봉지가 굴러다닌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국관 중 매너는 월드컵엔 패에 예선탈라!"

백투더 퓨처

0...정각엔 앞에 설치된 전광판 광고가 시간을 초월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데. 알아보니, 전광판에서 이미 시기가 지난 광고와 미래의 광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이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될 뿐 아니라 '동국 100주년'이라는 문구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모든 광고가 100주년을 향해 휘날릴 때에도 차마 지나간 광고는 어찌지 못하였으리랴"

e-게시판 세상

0...게시물이 바람에 날려버린다. 방학동안 새롭게 단장한 학내 게시판이 학생들의 변하지 않는 게시판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낱자 지난 포스터는 물론 미구 찢어진 게시물에, 더덕더덕 남겨진 테이프 자국까지 현 게시판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게시판보다 학생들의 의식부터 새 단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베스트 셀러, 우리들의 일그러진 게시판화"

학생대표자회의 오는 4일

2000년 하반기 정기학생대표자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오는 4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학생대표자회의는 총 재적인원 99명 중 40명이 참가해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새터사고 △학자협약안 이행과정 △하반기 사업계획 △2000년 백상예술제전 △생활협동조합 법인화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다량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때 논의되지 못한 안건을 토론할 예정이다.

고수동정

▲김영민(영어영문학)=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LASIL-Japan 연례 국제 학술회의 논문 발표. ▲권영식(산업시스템공학)=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국-스텐포드대학 정보기술협력 사업 참가.

인터뷰 - 30년만에 우승으로 이끈 김승기 축구부 감독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이 고마울뿐”



-30년전 우승 당시 최우수 선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이 되어 다시 우승을 차지하신 소감은.
=97년 부임할 때부터 꿈꿔오던 일을 이뤘다.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이룬 첫 우승이라서 감회가 새롭다.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며 열심히 훈련해 준 선수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이번 대회 어떻게 준비했나.
=지난 2월 애리조나 동문회의

지원으로 미국 전지훈련을 다녀온 이후 선수들이 많은 힘을 얻었다. 그러나 대회 직전까지 부상선수가 많아 작전구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상 선수의 대부분이 공격수이기 때문에 수비에 중점을 두는 작전을 활용한 것이 적절했던 것 같다.
-MVP를 차지한 안효연이 졸업하게 되면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현재 1~3학년에도 훌륭한 선수가 많고, 고교 축구부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우수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전력에 크게 손실이 있을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뷰 - 대학축구선수권대회 MVP 안효연(체교4) 선수 “부상 극복하고 대표팀에 복귀할 터”

-실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MVP로 선정됐다. 소감이 남다른데.
=허리부상으로 올림픽 대표에서 탈락한 후 경기를 뛰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후반에도 열심히 뛰어주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 그동안 대표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팀훈련을 거의 하지 못했다. 경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야 했는데, 그 점이 조금 힘들었다. 또 상



대수비의 집중훈련으로 활발한 플레이를 펼치기가 어려웠다.
-곧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실업팀도 참여하는 종합선수권대회와 FA컵대회에 대비할 예정이고 12월에 프로팀 드래프트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우선 기량을 회복해 대표팀에 복귀하고 싶다.

명사초청특강

사랑(愛)과 결혼(結婚)
-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일시

10. 17(화) 17:00~19:00

장소

본관 중강당

여남영 위원

-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
- 방송국 구성작가, 여성관련 자유기고가로 활동
-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 자문위원

- 내 사랑엔 내가 없다
- 기센 여자가 꽃지도 좋다
- 초보 엄마 파이팅(14인 공저)

학생처

해외학자초청 불교학술세미나

- 중국 문화에 끼친 불교의 영향 -

1. 일 시 : 10월 6일, 15:00~17:00
2. 장 소 : 다량관 세미나실
3. 강 연 : 양중문(楊中文) 교수
4. 강사역력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불교연구실 주임교수
·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생 박사지도 교수

불교문화연구원

단수안내

2000년 하반기 물탱크 청소관계로 아래 기간동안 단수되오니 사용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 래

1. 1차 단수일정 : 10. 7(토) 07:00~23:00
동국관, 해화관, 상록원, 박물관
2. 2차 단수일정 : 10. 8(일) 07:00~23:00
본관, 학군단, 원흥관, 다량관, 정보문화관, 학생회관, 고시학사, 학림관, 금강관

사무처

건강검사

대학 기간동안의 개인의 건강관리 및 입사지원서 기입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사는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인원 : 재학생전체
2. 비 용 : 무료
3. 기 간 : 10월 4일(수) ~10월6일(금) 3일간
10:00부터 17:00까지
4. 장 소 : 본교 보건소(본관2층)
5. 검사내역 : 1)간염검사: 항원항체검사
2)간기능검사
3)소변검사: 당, 단백, 잠혈
4)빈혈검사
5)혈당
6)혈압
7)흉부엑스레이

2000학년도 2학기 편입생 신체검사

2학기편입생의 신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 신체검사는 편입학생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이므로 빠짐없이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인원
2000학년도 2학기편입생 전체
2. 기 간
10월 5일(목), 10월6일(금) 2일간,
10:00부터 17:00까지
위 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수검함

3. 장 소
본교 보건소(본관2층)

보 건 소

권력형 비리사건과 특별검사제

논단

살아있는 권력 통제와 검찰 신뢰 회복

최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던 여당도 최근 들어 수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한빛은행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면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과 장관부인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에 이어 세 번째가 될 것이다.

특별검사는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서 나타난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치유하는 제도로서 1988년 이후 제기되어 왔고, 이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치열한 격론을 벌여왔다. 특별검사제가 그 모국인 미국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도입주장이 끊이지 않는가?

검찰 중립성과 엄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

특별검사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은 검찰의 중립성과 엄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다. 한국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성역"으로 불리는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하의 상황은 잊혀놓더라도, 민간민선정부인 김영삼 정부 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대한 검찰의 입장 번복과 '한보 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 등은 대표적 예이고, 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특별제 도입의 계기가 된 두 사건 외에 각종의 선거사범 수사, '3.30 재보선' 시 여당의 50억원 살포의혹 사건, 경기은행 퇴출무마 로비사건 등에 대한 검찰수사는 여전히 편향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특히 법집행기관인 검찰이 되려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전(前) 대검공안부장의 취중발언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불 때 특별제를 둘러싼 현재의 한국 상황은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으로 특별검사법이 실효한 현재의 미국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워터게이트 특별소추팀'의 책임자의 해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추락 등을 배경으로 특

별검사제가 도입되었던 1970년대 말의 미국 상황과 유비(類比)된다. 즉, 미국에서 특별검사제의 효력연장 실패가 곧 우리나라에서의 특별검사제 도입론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겸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내지 못하여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 나아가 국가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왔으므로, 검찰구조 외부에서 작동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한 소추기능을 이원화하여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하여 검찰을 정치적 비난의 대상으로 해방시키고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과 특별검사 사이에 선의 경쟁구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자기반성과 재생의 계기 되어야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특별검사제는 오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



조국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추락한 현 시기 한국 사회에서 한시적이거나 특검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며, 한국 검찰은 이를 자기반성과 재생

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어나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로 국민에게 비춰졌다면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또는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를 요구한 사건 중 국회본회의가 의결한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가 작동되도록 하거나 또는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원내교섭단체 소속의 총재, 부총재,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핵심공직자 관련사건의 경우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설

문산~임진각 걷기대회와 동국인의 정체성

시드니 올림픽이 한창인 요즘 휴게실, 식당, 학생회실 등 TV가 있는 곳은 학생들로 가득하다. 중계방송을 통해 선수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함성과 탄식이 절로 나온다. 시드니 올림픽에 푹 빠져있는 동국인을 보며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야 할 백상예술제전으로 시상을 돌려본다.

백상예술제전 개막을 10여일 정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산에서 임진각까지 걷는 통일 걷기 대회로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진다. 올림픽에 보이는 관심에 비해 학과·동아리별에선 선거기가 벌어지고 있는 운동장은 매우 쓸쓸하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보는 스포츠'에 익숙해져 있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생회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치르는 여러 행사 가운데 연세대와 고려대의 연·고전 또는 고·연전은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행사는 실제로 구성원들의 애교심을 높이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두 학교의 연례 행사로 자리잡고 학교 전체가 휴강까지 하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소속감과 단결심을 고취시켜 집단의 통합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후 '아! 나는 동국인이구나!' 하는 소속감 혹은 정체성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국인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통일대행진에 참여해 문산에서 임진각까지 걸으면서 동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주캠과 조교협의회의 개정안

지난 25일 경주캠 조교협의회의가 목소리를 높이며 업무중단에 들어갔다. 지난 학기초에도 제기되었던 조교제도개정안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조교의 종류와 보수 지급 기준 단순화, 업무 역할의 명확한 설정으로 전문성 신장 등 현행 조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교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경주캠 조교인사규정 개정안이 지난 한 달 동안 보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교 재임용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잠정적으로 업무가 진행돼 추후 효도수당 미지급과 임금 체불이 이러한 사태를 낳게 된 것이다.

경주캠의 조교 인사개정안이 서울캠과 비슷하게 적용될 경우 경주캠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수밖에 없다. 특히 운영정원과 자격 측면에서 경주캠은 일반 대학원 수도 적을뿐더러 대학원 재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연구조교의 운영 정원을 교육조교로 전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이 신설될 때까지 이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의학계열과 같은 실험·실습을 요하고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교의 경우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이어야 업무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주캠의 현실이다.

어느 대학이나 다름 바 없이 조교의 임기가 1.2년으로 한정돼 있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 조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조교협의회의 사태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예외될 수 없음을 알리고, 더불어 경주캠 대학원 신설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안 분석

독소조항 남겨둔 7조 개정안

시민단체 "허구" 비난... 대부분 문제조항은 삭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를 잇는 등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정기 국회 개회를 앞두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검토위원회'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개정안은 국보법 제7조 등 문제가 돼왔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부 개정함으로써 이

정안은 개인적인 차원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이적행위'는 처벌하지 않겠으나, '이적'을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과 가입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7조 1. 4. 5항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이적'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하지만 하면 그 자체로 처벌된다.

셋째로 제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했다.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법 이전에 인륜에 반하는 조항으로 규탄 받아온 사항이다.

이밖에도 제18조, 제19조, 제21조의 인권 침해 시비를 일으켜 온 국보법 관련 조항과 수사를 위한 국보법상의 특별형사소송규정 등을 삭제했다.

민주당의 국보법 개정에 대해 본교 조국(법학) 교수는 "국보법은 북한의 논리와 정책을 비판하고 냉전, 반공, 분단 체제의 논리를 비판하는 일체의 시민의 사상과 이를 위한 조직활동을 철저히 금압해 왔다"며 개정의 당위성을 말했다.

민주당의 개정 움직임에 앞서 시민·사



회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다. 지난달 28일 명동성당에서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이날 집회에서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은 "제7조를 개정한다면 대표 독소조항인 제3항은 살려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 7조의 제3항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를 명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까지 국보법 7조 위반 구속자 가운데 92%가 제3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권오현 의장은 "민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허구"임을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어떤 특정법으로 인해 단 한사

람의 인권이라도 침해된다면 그 법도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국보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보법의 주요 조항을 많이 삭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남북의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 국보법이 야기하는 문제가 끝날 수는 없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진 부주장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E-mail dgupress@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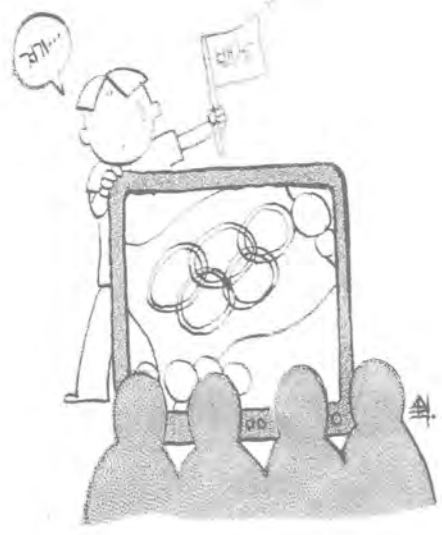
2001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명 2. 모집지역 : 4학제 대학졸업자(2000.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0. 10. 2 ~ 10. 28 나. 장소 : 학군단 다. 구비서류 - 지원서 1부 -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 주민등록 / 호적등본 각 1부 (부모사망시 제적등본 추가) - 대입수능(학력)성적증명서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칼라사진(4x5cm) 4매 -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4. 선발절차 가. 1차 : 수능성적(20%), 대학성적(20%), 체력검정(30%), 인성검사 나. 2차 : 신체검사, 면접평가(30%), 신원조회 5. 합격자 발표 : 2000. 3. 27 6. 특전 가.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지원 가능 나. 국내외 민간대학원에 국비취학 가능 다. 의무복무기간 : 3년 라.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마. 전역시 일반기업체 취업 알선 7. 문의처 : 학군단 행정실 2260-8537 제112학생군사교육단

장기해외연수자 선발 1. 지원자격 1) 불교학과 박사 논문 준비자를 우선으로 함 2) 본 연구단 신진연구인력 (계약교수, post-doc) 3) 지원자 요건 : 토폴 550점, 일본어 능력시험 2급 기준 2. 선발인원 : 0명 3. 연수 예정 학교 1)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2) 일본 대정대(大正大) 4. 연수일정 : 2001년 1월 ~ 6월 (6개월) 5. 제출서류 1) 외국어 능력 확인 증명서 2) 지원서 (http://www.dongguk.edu/ → bk21 홈페이지에서 다운) 3) 연구실적물 목록(특허포함, 제목, 연구자, 발표자, 발표일자, 논문개요순으로 기재) 1부 4) 연구계획서(2,000자 내외의 분량) 1부 5)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6)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각 1부 7) 연구실적물(석,박사 학위 논문과 1996년 9월 1일 이후 발표된 논문, 저서등) 각 1편 6. 선발방법 1) 외국어 능력 2) 연구업적 3) 면접 7. 제출처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교수회관 131호 층 2260-3759) 8. 마감일자 : 2000년 10월 20일 ※ 연수비용은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사업비에서 지원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Blank area for additional notices or advertisements.

동약론

함께 합시다



“어? 거울에 뭐가 붙어 있어?”

지난주 총학생회는 백상예술제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스티커 설문조사를 화장실 거울에 붙여 놓았다. 백상예술제전에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관심을 촉구하고자 실시된 이 설문조사는 애석하게도 학생들의 무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통일 대행진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에서 “통일 대행진이 뭐야? 관심 없어!”라며 학생들은 ‘관심 없음’ 혹은 ‘참여하지 않음’에 빼곡이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백상예술제전이 학생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감지한 첫 번째 설문결과와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총학생회는 바로 2차 설문을 시도했다.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 참여 않았다. 관심 없다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왜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지를 질문한 두 번째 설문은 홍보가 부족해서, 학생회에 대한 불신, 내일 하기 바빠서 등 다양한 응답에 고르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설문 결과에 따라 총학생회는 행사 홍보 포스터, 선전물과 함께 직접 과·학부 학생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참가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심 분야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특성과 모집단위 광역화로 무너진 학생회 체계로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관심없다’고 외치면서 소속감 없는 대학생들에 회의를 갖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참여’의 노력을 기울이기에 앞서 ‘무관심’을 변명처럼 늘어놓는 것이 오늘 대부분 동국인의 모습임이 안타깝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2000년 국제법학회 제3회 학술제

너무 넓은 S.O.F.A.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진 않습니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1945년 미군정 시기에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정협정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1년 지금의 SOFA가 완성되었다.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협정을 맺고 있지만 주둔지 당사국의 정치적 수준이 미약할수록 불평등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군의 각종범죄와 환경문제 등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SOFA는 주권침해의 약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SOFA개정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개선없이 막을 내렸다.

본고 법과대 국제법학회(회장=조준호·법학1)는 지난달 25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중 불평등 조항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로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에 대해 알아본 자리였다.

학술제는 △형사관할권 및 민사청구권 문제에 대한 고찰 △미군 공여지와 노무문제에 대한 고찰 △환경관련 조항에 대한 고찰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군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

협정 제22조에는 △미국 관리의 입회 없이는 수사 및 재판이 불가능하다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넘겨준다 등의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미군 혹은

은 군속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미군당국의 협조 없이는 조사를 시작할 수도 없다.

또한 협정 제23조에는 ‘공무집행 관계없이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 민사소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군 작전 차량이 한국인의 상점을 파손시켰을 때, 위 조항 때문에 상점주인은 합당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SOFA에 명시된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불평등하다. 따라서 국제법학회는 위의 개정방향으로 미군당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형벌권을 행사할 것과 우리의 민사소송절차를 미군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주한 미군에 공여된 땅의 자산가치는 12조 6천 3백억원, 우리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100조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가 미군기지를 위해 쓰여진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이 여의도 광장의 600배에 달하는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SOFA 제 2조, 제 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한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군은 공여 된 땅을 무상으로, 그것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협정 제17조 3항에는 미군 부대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핵심인 임금문제에 대한 협상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는 파업조차 할 수 없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미군기지 내 지하송유관

기름유출사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 폭음피해 및 미공군 열량우라늄탄 사용 의혹,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 이것들은 모두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 사례들이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 강원도 원주시 미군기지에서 10년 동안 인체에 유해한 폐유를 방류한 것이 밝혀져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행위는 국제법상 위반이다

그렇다면 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한미행정협정의 제4조 1항에 기재된 미군이 우리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원상회복과 보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 배출로 인한 기지 주변의 환경 및 주민의 피해까지 책임을 면제할 것이 아님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는 국제법위에 해당한다는 국제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미군이 국제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5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SOFA라는 굴레에 얽매어 미국에게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봐도 한·미SOFA는 너무 많은 불평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제법학회의 학술제는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법학도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도 앞으로 13일에 열릴 ‘SOFA개정협상’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북일국교 정상회담 10월중 개최

일본지배 합법화 계기된 한일협정

북일수교, 역사 바로잡는 계기돼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이틀 앞둔 지난 21일, 일본의 모리 총리는 KBS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했다. 독도에 관한 망언이 어디 한 두 번 있었던 일이겠나마는 과거 수많은 망언과 달리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최고의 통치권자인 총리가 직접적인 표현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한일외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8월 일본 문부성을 통과한 역사교과서가 현대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침략사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려는 일본의 국수주의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의 반역사적 행위는 최근 개최된 북·일국교 정상화 회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92년 11월 본 회담이 결렬된 후 7년 만인 올해 9차 및 10차 본 회담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10차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10월에 개최될 11차 회담을 남겨두고 있다. 2차대전후 1951년 미국은 전후처리문제를 위해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을 연합국 명단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따라 한국은 조약 조인국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자신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것이 바로 1965년 한일협정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연구원은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침략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경제협력과 배상으로서의 보상으로

협정을 마무리 지으려 하였다. 이는 일본의 지배를 합법화 시키려는 조치에 불과 했다”며 “이 협정은 이후에도 일본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일수교에 앞서 진실된 역사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을 공론화 시키고 일본의 사죄를 받는다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도 가능할 것이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말하



면서도 일본에 당당히 말하

지 못하는 미미한 국력과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보고도 합구해버리고 마는 안일한 정부가 나오게 된 것도 제대로 된 역사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정종권 정책기획국장은 “일본은 과거역사 자체를 그들 마음대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일수교는 북미수교만큼이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진실된 역사규명으로 식민지배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65년 굴욕적인 한일수교라는 ‘원죄’와 현재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의 필요성이 결합되어, 현재의 북일수교 협상 과정에 대해 침묵하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다.

손상민 기자 ne08292@dongguk.edu

동악 민주화운동 역사를 되살려라

사회 뒤따르지 못하는 대학, 저항정신과 실천 필요

지난 8월 21일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는 3선개헌 이후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운동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민주화세력과 민주화를 억압한 세력을 명확히 구분 짓는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은 무엇인가?' 라는 정의와 범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은 단지 민주화운동을 과거의 것으로 박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민주화를 부정한 군부독재정권과 그에 편승한 수구세력의 손으로 쓰여진 역사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민주화운동은 항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억압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동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4·19에서 시작하여 65년 굴욕적 한일외교 반대 시위, 80년 군부의 정권찬탈 야욕에 맞서 죽음을 향겨웠던 광주민주화운동,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냈던 87년 6월 항쟁, 그리고 95년 광주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진행되었던 동맹휴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과 그 흐름을 같이 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동악의 민주화운동은 4·19에서 멈춰 버린다. 피의 값을 치르면서 민주화의 의미와 가능성을 보여준 미완의 혁명으로서의 4·19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민주화운동은 동일한 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동악의 역사로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은 실천 과정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한 평가와 복원의 과정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를 보강·확대하는 것이 기본이 끊임없는 저항과 민주적 실천이라면 그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역사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인정받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 그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학살을 자행했던 군부와 그들과 야합하여 탄생한 문민정부의 법적·역사적 왜곡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였다.

민주화운동 보상 및 명예회복 또한 이 과정과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이 정권의 정

통성의 근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악에서는 이와 관련된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사회의 민주화보다 낙후된 대학의 민주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이 사회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뒤쳐졌을 때 그 대학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독재의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논리로 역사를 복원하려는 사회적 흐름에 동악이 뒤쳐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동악에서의 민주화 지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환(生還)하는 것이다. 현재의 실천 속으로 생환된 역사만이 힘이 된다'는 신영복 대사의 말처럼 동악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것을 동악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동악의 역사를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동악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화는 바로 우리가 일구어낸 것이며, 일구어 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영제
정치학 박사과정



사건일지

1964년 6월 3일 6·3항쟁

'제2의 을사조약을 즉각 철폐하라'

1964년 3월 24일,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반발하여 본교생 3천여명을 비롯한 수만 명의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3일간 계속되자 박대통령이 학생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지만 정부는 약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시위탄압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켰다.

이에 분개한 본교생들은 14일 4월 혁명 기념식을 끝낸 후 시위를 벌이기 시작해 21일 시국대강연회에서 3명이 구속되었다. 정부의 탄압에도 시위는 중단되지 않고 5월 11일 본교와 서울대, 성대, 건대, 고대 등으로 구성된 대학연합이 20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시위를 벌인 중 본교생 이원범(행정4)이 구속, 박동인(정의4)이 불구속 기소된다.

고조되어 가던 시위의 열기는 6월 3일 절정에 달해 본교를 포함한 서울시내 대학생 2만여명은 '무단 박정권 물러가라'는 구호 아래 시위를 감행한다. 이에 위기를 느낀 박정권은 오후 9시 40분 대통령 포고 11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이에 본교생 김실(농경4·총학생회장), 어성우(정의4), 남경(정의4), 김선홍(법학4), 박희부(법학4), 김경남(정의3), 이진택(정의1), 유창일(경영3)이 구속되고 이어서 서울시내 각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진다. 이 사건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운동 6·3항쟁이다. 비록 정부의 탄압으로 학생 운동이 현실참여의 한계에 부딪치기는 했지만 6·3항쟁의 정신은 65년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운동이 계승하여 학생 민주화 운동의 맥을 이었다.

1979년 10·26 ~ 1980년 5·17

79년 10·26 이후 각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지만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에서 '서울의 봄'이 시작된 것이다.

80년 5월 6일 본교에서는 1천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 대약진 운동'이 열렸고 '전 동국인은 통곡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계엄해제,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철야농성시위에 들어갔다.

7일에는 계엄당국에 대한 성토대회와 지하(芝洞)문학의 밤을 열었다. 그리고 8일, 개교 74년 기념식에는 7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정재가 총장과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계엄철폐, 언론자유보장 등 8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1차 민주화 대약진 운동'을 마쳤다.

19일, 연대생들의 가두시위 후 총학생회연합회는 시국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가두시위에 전국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본교 2천여 명의 학생들은 고대·서울의대·성대생과 합류하여 종로 3가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지만 경찰의 강력한 저지를 받아 해산되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15일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시 가두시위에 나섰고, '여러분이 희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며 정재가 총장까지 앉았다. 퇴계로를 지나 서울역에 이르렀을 때 학생들의 수는 7만에 달하고 합류한 시민들의 수도 30만대로 불어나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역 학생지도부가 퇴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위의 열기는 수그러들었고, 16일 5·16규탄 성토대회를 가진 후 해산함과 함께 80년 민주화의 불도막을 내리게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87년 6월을 뜨겁게 달군 6·10 민주항쟁은 군부의 장기 집권전략에 맞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학내에서도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군부의 장기집권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4·13호헌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본교 교수와 대학원 학생회는 호헌철폐 시국성명서를 발표해 이에 반발하였다. 또한 승려, 학생 30여명이 도서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문과대, 공과대 학생회 등은 동맹휴업을 실시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6·10 국민대회'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이 때 본교 학생들은 남대문, 명동, 을지로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주도했다. 6월 15일에는 사상 최대 인원인 5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비비상총회'가 열려 상황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공'이라 불리며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못했던 총학생회가 탄핵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민주화운동으로 궁지에 몰린 당시 정권은 6·29선언을 발표했고, 마침내 시민·학생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다. 민주운동회 이상근 사무국장은 "6월항쟁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본교 학생회는 이후 전대협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그 이후를 평가하고 있다.

1995년 동맹휴업(광주항쟁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지난 95년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이 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란 이유로 정부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란 주장을 내세우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시위와 반대성명이 잇달았고 본교도 동참했다.

8월 31일, 총학생회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며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날 성명교수들의 의견도 전달되었는데 서명을 한 62명의 교수들은 "정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윤리성이 걸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란 입장을 밝혔다.

그후 크고 작은 집회가 계속되었고, 9월 29일과 30일에는 본교를 비롯한 전국 1백여개 대학의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5·18학살자 처벌과 학살자 비호 김영삼 규탄대회'와 동맹휴업이 결의되었다.

교수들도 서명운동에 이어 동맹휴업에 적극 참가했다. 29일 집회 후 시내 선점점으로 나가려던 학생 5백여명은 점쟁들과 중문에서 화염병과 최루탄의 공방전을 벌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또한 30일에는 '학살자 처벌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가 장충단공원에서 열렸다.

당시 총학생회는 "동맹휴업과 수 차례의 국민대회로 정부에서 12·12사태와 5·18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시위를 평가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왜곡된 역사의 고리 끊다

대상자 발굴·의문사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 활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이하 의문사규명특별법)'은 1969년 8월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 불이익을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민주화운동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거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기타의 자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 국가권력에 직접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압력에 의한 간접피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또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고발과 진상보고를 거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지난 98년 11월부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이 있었으며 국회에서는 여·야당간에 의견조율이 안와 파업을 거듭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해에 들어서야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12월 17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단독으로 연 국회 행정 자치위를 거쳐 2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올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상법은 시행령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대상자를 2만 여명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보상액수는 최고 1억 6천만원에서 2억원, 대학 재학 중 사망한 유족에게는 총 3천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5천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교 민주동문회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부상 등을 당하거나 의문사를 당한 동문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문회에서는 대상자의 수를 3백여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발굴조사를 마치는 오는 20일까지 이들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민주동문회는 법안적용대상들의 기준과 국가보안법 대상자 불인정 등의 최근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개정 운동 움직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현중 기자
dizzy20@dongguk.edu



87년 11월 29일 ... 서대문 부근에 몰려있던 시민들이 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흩어지고 있다.



85년 4월 20일 ... 연세대에서 대학생들이 교문밖으로 나오자 경찰과 충돌했다.

동문칼럼

진정한 교육 가치를 잃어가는 사회



박영권
안양고 교사 체교99졸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나는 얼마전 학생의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로, 이제 겨우 8개월의 교직생활을 통해 하나씩 느끼고, 깨어가고, 나름의 교육관을 정립해 가는 인양의 새내기 교사이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학교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많이 접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왕따' 그리고 '교실붕괴' 등은 예비교사로서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교육이 대입 수능시험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나머지 발생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 개발이나, 창의력 신장 그리고 인성교육의 소홀' 등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안양고는 아직 비평준화 지역으로 대학 입시 못지 않은 고교 입시로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관심이

진학에 집중되어 있다. 입시라는 고리 속에서도 학생문화는 급변하고 다양해지는데 교육은 경직성을 놓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열린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기초 한 학생의 부모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의 성적은 반에서 7등 정도였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은 명문대 진학이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과 성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해서인지 특기생 자격으로라도 명문대에 꼭 가겠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학교 생활보다는 경시대 회나 여러 가지 대회 출전을 위주로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소위 일류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은 학업성적에 매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특기자 신청을 위해 경시대회를 찾아 다니기도 한다. 그 외에도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는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수단을 뛰어 넘는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에 대해 공평하게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학교 교육의 가치임을 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 현실은 정부의 교육여건 조성 및 지속적인 개선(학급당 학생 수의 감

소, 청소년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 등)은 물론 이것과 더불어 학교나 교사들의 교수 기술 향상 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정도를 넘었다고 본다.

학교는 학생의 육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두레, 동아리, 학예회, 반 소풍 등)을 모색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와 교사의 권위를 쌓고 가정과의 협조(아버지의 학교방문, 명예 교사제, 체육대회 등)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진정한 학교 교육의 가치를 찾을 때 교육의 붕괴가 아닌 새로운 교육을 창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달하나 천강에

염색과 피어싱, 모방 혹은 구별



박찬웅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 학교에서 머리를 여러 가지 색으로, 심지어 빨간색이나 보라색으로 물들인 학생들과 몸에 구멍을 뚫고 장신구를 다는 피어싱(piercing)한 학생들을 여럿 보았다. 유행에 민감한 패션계에서는 이미 피어싱이 신세대의 새로운 유행이라고 선언하였다.

신촌이나 입구정동 거리에는 가을철 단풍만큼이나 다양한 머리 색깔과 귀, 코, 입에 피어싱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눈에 익숙할 정도로 흔해졌다.

새로운 유행이 늘 그러하듯이 피어싱에 대한 의견도 일부에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의 나라에서 소중한 몸을 함부로 하는 불지각한 젊은 세대라는 쪽과 몸까지도 자기의 개성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유로운 신세대의 멋진 모습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진다.

문화평론가들에 의하면 피어싱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에서 듣는 대답은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라, '그냥 하고 싶으니까', '멋있으니까', '튀어 보이니까'이다.

그러나 유행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세대가 이 세대뿐일까? 장발, 미니스커트, 나팔바지는 모두 이전 세대의 머리 염색과 피어싱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유행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상층 이동하려는 노력의 사회적 결과라고 논의한다.

염색이나 피어싱을 하는 것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구별짓기는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집단 따라하기가 되어 버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난히 유행의 속도가 빠른 것은 유행 자체가 산업이 되어 빠른 속도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사람들의 비극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영원한 유행은 없고 영원한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으려는 시도만이 아닐까? 염색과 피어싱에 대한 유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서구사회에서 들여온 수입품이라는 것이다. 남의 흉내나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든 구별짓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만화영화박물관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배우는 자리

일본 애니메이션 개방을 앞둔 작은 움직임 ... 21세기 만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박물관은 동서고금의 고고학 자료와 미술품, 역사적 유물, 그 밖의 학술적 자료를 널리 수집·보존·진열하고 일반에 전시하여 학술연구와 사회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다. 결국 박물관은 한 사회뿐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가치까지도 간직한 곳이다.

지난 7월 서울랜드 이벤트홀에 개관한 만화영화박물관은 이런 의미에서 만화영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만화영화박물관은 1908년 최초의 만화영화 '판타스 마그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화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로 연표, 만화영화 포스터, 캐릭터와 만화제작 과정이 전시되어 만화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화의 위상과 가치에 대한 지리매김의 장으로 기획된 만화영화박물관은 만화의 셀과 스토리 보드, 인쇄동판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일본에니메이션 3차개방을 앞두고 우리 만화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반추는 21세기 만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화영화박물관은 60년대부터의 과거와 최근의 만화경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과거 '태권 V'의 초고와 옛날 만화방 등이 어른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포켓몬 캐릭터 인형은 어린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까지 극장과 TV를

통해 방영된 만화영화 중 우리나라의 만화영화 필름은 대부분 소실되어 매일 외국 만화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만화를 즐기는 내수시장이 취약하고 만화 세대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물관 관계자는 "어린 아이들은 마징가 Z를 우리 만화로 알고 있다. 조금 더 만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 만화가 재평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만화는 더 이상 저급한 문화가 아니다. 기발한 창의력과 작품성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예술장르로



서울랜드 이벤트홀의 만화영화박물관, 만화영화 캐릭터인형과 포스터 등이 전시.

인정받고 있다.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창조해내는 온고지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만화영화박물관의 그 작은 움직임은 11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최은진 기자
funny@dongguk.edu

마음으로 연마하는 무예 '국궁'

경주캠 신생 동아리 동궁, 인내와 집중력으로 전통 지키다

과녁을 향해 힘껏 당긴 시위는 초승달 모양으로 한껏 구부러진 활을 떠나 '퐁'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로질러 우아한 곡선을 그린다. 잠시 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과녁에 살이 꿰고 '관중이오'라는 힘찬 목소리가 전해져 온다. 이것이 바로 '국궁'이라고 불리는 전통 무예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으로 알

려져 있다. 중국이 창, 일본이 칼이라면 우리 나라는 활이라고 내세울 정도로 활과 우리 민족의 관계는 끈끈함 그 자체로 이어 내려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궁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활의 나라'라는 이름을 무색케 한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의 것을 배우기 위해 활터를 찾는 경주캠 신생 동아리 '동궁'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비춰진다.

이 동아리는 전통을 찾아 활사위를 당기는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영겨주춤 합습을 부르고 요란스럽게 춤을 추지 않는다. 과녁과 마주한 고요한 속에서 조선의 궁술을 다시 찾겠다는 야심찬 다짐만 가득할 뿐이다. 흔히 젊은이들이 전통을 고리타분하고 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고는 국궁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매주 2번씩 호림정을 찾아 동양의 궁도에 심취하여 1백45미터 전방의 과녁을 향해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정적으로 보이는 활쏘기는 사실 전신운동이다. 서있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활을 과녁에 맞출 수 없다.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 아랫배와 발의 힘

을 빼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이루어지고, 한발은 쏘는 10여초 동안의 집중력은 마음을 가다듬는 인내와 집중의 미덕을 배우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과녁에 시위를 날려보내기 전,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초시례'를 갖추는 모습이다. 끝까지 '예'를 잊지 않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활쏘기를 통해 전통을 되새긴다는 방호열(동궁 회장·한의본2)군은 "우리 것을 다시 찾는 움직임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문화이자 전통의 일부이다. 그 속에는 당당함과 넉넉함을 추구하던 선조들의 풍류와 전통문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고요함을 뚫고 날아가는 빠른 화살의 움직임으로부터 젊음의 힘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내일은 전통을 지키려는 이들이 있어 희망적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전통무예동아리 '동궁'의 활쏘는 모습.

벼룩시장, N세대의 새로운 소비문화

벼룩시장이란 명칭은 과거 유럽의 중고품 시장에서 벼룩이 나왔다는 이야기에 유래했다. 때문에 벼룩시장이라고 하면 물건을 아무렇게나 진열한 좌판을 떠올리거나 청계천과 황학동을 연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의 주체라 여겨지는 젊은 층이 벼룩시장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재래 벼룩시장의 어수선하고 촌스러운 분위기가 사이버 벼룩시장의 등장때문에 세련된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동대문 훈련원 공원'에서 패션 잡지 '씨씨'가 주최하는 벼룩시장이 열렸다. 지정된 장소에서 자기 물건에 직접 가격을 매겨 파는 장터 분위기로 꾸며진 이 행사는 DDR경연대회와 인라인스케이트 시범 등을 선보였다. 이 행사는 N세대가 소비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뜰하고 실용적인 사고를 통해 과소비를 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On-Line 상의 사이버 벼룩시장에서는 컴퓨터 부품과 MP3부터 한창 유행하는 의류상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고품 매매 이외에도 자동차와 요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 각지에 물건을 싸게 파는 매장을 소개하기도 한다. 특히 'www.ot4989.com'은 '교복 물려주고 물려입기'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사이버 벼룩시장이 기타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벼룩시장은 충동구매를 조장하고, 실제 상품과 화상에 나타난

상품의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성인비디오와 같은 불법복제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입금시켜 사기를 당하는 피해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이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의 한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직거래를 하고, 물건을 받아 보았을 때 반품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벼룩시장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유품이라 칭해지던 벼룩시장이 축제의 모습으로, 네티즌들의 활동무대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소위 N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태도를 반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벼룩시장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한바탕 즐기기 위한 불거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익명성을 보장받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벼룩시장이 언어폭력과 각종 사기행각을 부추기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매체비평

- 애니메이션 편

'무사 쥬베이'

"일본 애니메이션, 한국적 잣대로 질적인 평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히드고어 작품 '무사 쥬베이'.

일본대중문화 3차개발 결정으로 일본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개봉되기 시작한다. 특히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에 한

해서 수입되는 이번 개방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인기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대부분 수입될 예정이다. 이미 국내 애니메이션 수입자들이 경쟁적으로 수입관권을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개봉시점만이 가장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엔 처음으로

본사(간지)로

‘요수도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히드고어 작품을 만들어낸 감독으로 대개 일본 만화가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엄격한 잔혹과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선정성과 폭력성이라고 정의하기조차 무뎠거릴 정도의 극한 표현을 영상미로 재현하고 있는 가와지리 요시아키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니고 있는 리미티드(limited)기법을 극도로 활용, 폭력 액션을 더욱 강화시켜 온 감독이다.

공정적인 평가로는 서구적이고 카리스마가 강한 캐릭터를 주로 디자인하고 생동감 넘치고 속도감 있는 리얼한 액션을 구현하여 '폭력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감독이다.

특히 '무사 쥬베이'는 이번 일본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한 애니메이션 수입작품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작품으로 국내심수의

준에 따라 통과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던 작품이었으며, 1차 수입 심의에서 반려가 나올 정도의 사회적 저항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특히 작품의 완성도 차원에서는 캐릭터의 선 마감이나 동작의 지속성 등이 거칠게 표현되고, 얼굴의 감정표현과 배경작화의 수준이 최상급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표현의 한계를 작품이 보여주는 히드고어의 충격으로 상쇄시키는 효과까지 느끼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이 곧 민심이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마저 정부부처 내에서 느끼고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시작된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정실이 되어 버렸다.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을 반대하던 기존

논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저급성이었으며, 나아가 폭력성과 선정성이 주요인이었다. 그러나 국제영화제의 수상경력(일본내 국제영화제였다)만으로 이러한 작품이 수입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국내 수용자들의 문화이해수준이 많이 높아져야 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본격적인 수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인 성인작품 '무사 쥬베이'의 개봉은 이제 애니메이션의 수용자가 본격적으로 성인층까지 확대됨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이며, 일본 애니메이션의 본질적인 표현미학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하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유명감독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질적 평가가 미학적 담론으로 포장되는 선례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창완
세종대학교 문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튀는 공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학내 · 거리 ...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심미성 두마리 토끼잡기

21세기 산업은 디자인이 좌우할 것이라고 한다. 실용성과 합리성, 심미성까지 겸비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상품에만 국한되는 말은 아니다.

거리를 둘러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사람들, 특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페들이 너무나도 많다. 바야흐로 의식주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지나고 아름다움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행여 그것이 그동안의 혹은 나만의 아름다움이라 해도 말이다.

요즘 학내를 둘러보면 '뭔가 달라졌음'이 감지된다. 굵이굵이 산을 넘어 강의를 들어야하는 것도 그대라고도 혼자 조용히 명상을 즐길 공간없이 여기저기 빼곡한 사람들도 그대라고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근사한 녹색 차양 아래 앉아있었다는 것과 나무 벤치의 모양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뿐만이 아니다. 다리가 아프다 싶으면 자투리 공간에 쉴 곳이 마련되어 있다. 예전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에는 삭막한 벽과 조금 무식하다 싶은 탁자, 소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새 따뜻한 원목의 분위기에 감쪽한 의자들, 게다가 파우더

룸까지 생겨버렸다.

화장실은 또 어떤가? 아름다운 화장실 선별대회(?)에 나가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청결하며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다항관 휴게실도 만족스럽기 그지없다. 시원하게 트인 유리벽에 모던한 탁자라니.

이러한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학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다. 좁은 공간의 한계를 보다 양질의 공간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반갑기 이를 데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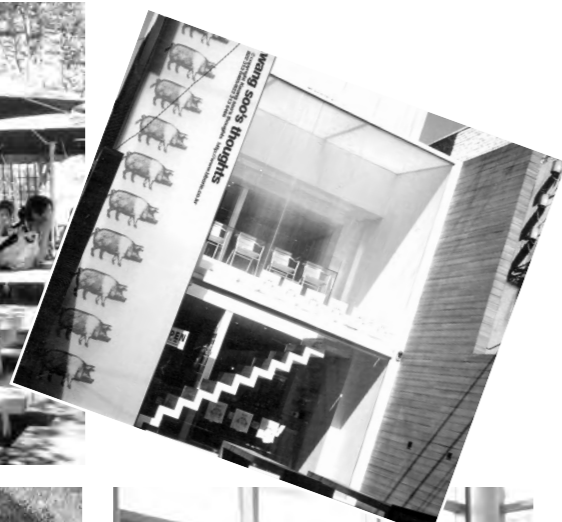
더구나 아직까지도 부분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근사한 휴게실과 깔끔하고 산뜻한 화장실, 여기저기 그늘을 만들고 있는 나무들과 강의실을 견주어보면 마냥 기쁘지 않은 것이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정작 강의실과 학생들의 자치공간은 비좁고 열악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시설과 함께 강의실과 학생들의 자치공간도 '아름다워'지는 상상을 해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 전체가 거대한 디자인 박물관이 되는 앞선 기대도 가져 본다.

최은진 기자
funny@dongguk.edu



메아리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은 일본과 영유권을 다투야 하는 섬이 있다. 새들만이 동지를 틀고 오가는 외로운 섬 독도.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이래로 독도는 신라의 땅이었으며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땅이었다. 삼국시기와 고려사를 비롯한 역사서에도 분명 독도는 우리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독도는 우리에게 '독도'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세계에서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논쟁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가지도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믿기에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난 19일 일본의 모리 요시로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나라는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일양국의 우호를 위해 한국측의 냉정한 대응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본 장관들의 망발도 모자라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까지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할말을 잃게 한다. 하지만 더욱 두려운 사실은 마치 파블로프가

중소리로 개를 길들인 것처럼 우리가 졸곧 일본 장관들의 망언에 길들여져 온 것이다. 이제 급기야는 일본 내각의 책임자가 우리 땅을 넘보고 있음에도 언론과 국민의 반응은 예전같지 않다. 한일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졸곧 해오던 소리를 이번엔 조금 높은 사람이 한 모양이구나이다.

▲일본이 장기간 50년간의 해로운 부채를 청산하지 않으려는 것, 시시때때로 명백한 우

리 땅을 넘보는 것은 우리 나라를 '몰'로 보는 처사이다. 일본 고위 관리들의 망언을 보할 때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그네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쳐진다. 일본이 다시는 우리 나라를 '몰'로 보지 않도록 모리 요시로 총리의 발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은진 문화부장 funny@dongguk.edu

이색공간 강력추천

지하철 이색공간

최근 지하철의 환승통로와 역내 공간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휴식터로 혹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광교관이 가득하던 벽면에 벽화를 그려 넣고 8각 나무의 자만 놓여있던 휴게실에 여러 가지 색과 모양의 의자들을 설치하는 것은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 환승통로를 따라 걷는 내내 파도소리와 빗소리가 들리는 가하면, 환승통로 천장에 여러 대의 TV모니터를 설치하여 자연의 영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지하철 역내 공간의 변화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산



업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미디어 시티 서울 2000'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하철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 4가 승강장 천장에 설치된 카드섹션 작품이나 지하철 2호선 교대역 휴게실의 '벽걸 거울'이라 칭하는 이상한 거울 등은 지하철 역내를 전시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들은 지하철의 자투리 공간을 하나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혹은 예술공간으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발전해가는 공간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광수생각 카페

이대입구에 위치한 캐릭터 전문점 겸 카페 '광수생각'은 넓지는 않지만 기존의 공간 운영 틀을 벗어나 1층은 캐릭터 전문점, 2층은 카페로 운영하며 더불어 육식을 아외카페로 개조했다. 1층의 캐릭터숍은 '쁘리'라는 캐릭터를 이용해 컵, 마우스 패드, 노트 등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을 진열·판매하면서 외국 캐릭터 상품의 홍수 속에서도 나름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2층의 카페는 타 카페와 달리 차와 음료 등과 함께 라면이나 우동 등 먹거리를 함께 제공한다. 3층의 아외카페는 육식이긴 하지만 육식이 아닌 듯한 인상을 준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기분으로 답소를 나누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긴 나무의자를 배치하고 있다. 오고가는 발걸음의 휴식처 역할을 하는 이 나무의자는 '광수생각' 건물에 진열된 캐릭터 상품을 쉽게 구경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부담없는 구경'으로 홍보의 효과를 얻고 있기도 하다. '광수생각'은 바로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를 꼭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경주 재활용카페

경주캠 부근에 자리한 카페 'TONG'은 모든 인테리어 구조가 '재활용'이라는 이색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고물 방장고에 TV, 다 망가진 풍금까지 어딘가 모르게 어슬픈 이들의 조화는 빈 계란관으로 꾸며 놓은 화장실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멋진 공간예술은 바로 모든 벽면에 그려진 그래피티 아트이다. 알아보지 못할 괴



기스러움과 상징성을 담아낸 이 그림들은 미술학과 학생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매번 새로운 그래피티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또다른 즐거움은 모리스 교수와 나누는 'free talking' 시간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이색카페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재즈 매니아가들이 찾는다면 더없이 즐거운 곳, 이곳 TONG에서는 생활 속에 예술이 묻어있는 공간체험이 가능하다.

짜잔! 인스타

학교 안에서

그리고...그림 정기전시회

서울캠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고...그림'이 14번째 가을 맞이 정기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유희를 중심으로 한 총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동국갤러리에서. 문의 011-987-3487(회장 박희란)

오월(2일)부터 6일까지. 동국갤러리에서. 문의 011-987-3487(회장 박희란)

열린 동연제

서울캠 동아리 연합회는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행동을 다시한다'라는 주제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동연제'를 개최한다.

4일, 학생회관 앞
탈(12시), ODC(6시), 피어리스 댄(6시), A-Jax(6시), 만화열 '공각기동대' 상영(7시)
4일, 불상 앞
검도부(6시)
5일, 학생회관 앞
아리랑(12시 30분), 롱게구름(6시), 매체비평연 '봄을 넘어라'(8시 30분)
6일, 학생회관 앞
페막식(6시 30분)

퓨전 콘서트

경주캠 댄스동아리 '유로스'와 락 동아리 '솔레리아'가 퓨전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교실메이아'와 '비에'를 포함해 총 11곡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도가 가미된 공연형식으로 진행된다. 노천강당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자리로 락과 힙합의 조화로운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5일, 5시 30분. 노천강당에서.

SEVEN GLASS 정기공연

경주캠 음악 동아리 'Seven Glass'가 24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몽을 걸어', 'Nice Dream'을 비롯해 많은 곡들이 선보이게 된다. 한편, 임석가야제 대삼곡 '나를 찾아서'와 오는 21일 열리는 대학가야제 본선 진출곡 '동전'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4일, 6시 30분. 원호관 소강당 1.

학교 밖에서

꽃다지 가을콘서트

'깊어가는 가을밤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꽃다지가 활동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에 대한 소박한 모습을 노래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10월에 발매될 꽃다지의 싱글앨범에 수록될 곡도 미리 선보이게 된다. 오는 13일~15일. 금 8시, 토 4시·7시, 일 3시·6시. 흥익대 옆 포스트 극장에서. 문의 2635-3580(꽃다지)

소나기

시드니 올림픽



△금보다 멋진 동메달이 많네요.
(펜싱, 야구 기타 등등)
△시드니로 온 스타는? 강초현, 팬클럽에 조성모까지... 오히려~
△우리 어릴적 타던 봉봉도 체조의 한 종류이려요. 나도 한번 나가볼까??
△마라톤 이봉주에게 ~ "봉주야! 에미다!"
△누굴 위한 심판인가... 우리 편 심판은 오데 가고~

△시: 합에서 안 이기면 드: 러운 육 언어먹는다.
니: 가 한번 해봐라. 이길랑강...

△동국 최강 센터 박상수를 L.G.로
△강초현 너무 귀엽다.
△올림픽 때문에 발표수업 망했다.
△심판 관정이 너무... 억울하네요. T.T.
△꽃이 시드니?

△일등병 공화국에 불을 지르다.
△마이클 창은 3번 시드니였다. 썬프라스는 몇 번 시드니?

△관심없다. 비싸 죽겠다.
△꽃이 시드니 올림픽이 끝나가는구나.
△금(金) 따와라!

△일본은 이겨야 한다. 화이팅!
△은메달 딴 사람도 동메달 딴 사람도 많이 이빠져줘. 다 금메달 갑 노력이니까.
△야구, 심판들이 미워요! 미국한테

4강전에서 진날... 시드니로 날아가고 싶었다. 코리아 파이팅!
△한일전에선 꼭 승리하길. 동메달을 기원하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전세계인이 숨죽이며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나날들...

△다음 올림픽 땀 통일된 한 나라로...
△시드니 파이팅!

△그리스 올림픽 때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올림픽이 되길.
△우리나라 올림픽 한번 더 개척해라... 평양올림픽으로.

△순위를 금메달로 축적하지 말고 총 메달수로... 그래야 더 인간적이다.
△강초현 이쁘다 ^^

△중요한 건 메달이 아니다 선수들의 노력이지.

△그리스 올림픽 때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올림픽이 되길.

△우리나라 올림픽 한번 더 개척해라... 평양올림픽으로.

△순위를 금메달로 축적하지 말고 총 메달수로... 그래야 더 인간적이다.

△강초현 이쁘다 ^^

△중요한 건 메달이 아니다 선수들의 노력이지.

서울 ☎:22603491·2
FAX :22791270
경주 ☎:(054)7702058
FAX :(054)7702057
문의·제보: donggukpress@dongguk.edu
이메일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돈육김치찌개(1300) 치킨가스(1500) 참치볶음밥(1300)
화	개천절
수	소고기국밥(1300) 제육불고기(1500) 스파게티(1500)
목	양지탕(1500) 하이리이스(1300) 닭고치구이(1500)
금	만두국백반(1300) 김치소스볶음밥(1500) 생선가스(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쇠고기버섯찌개(1500) 만두전골(3300) 쇠고기떡볶음(1500) 두부김치(3000)
화	개천절
수	짬뽕국밥(1500) 참치전골(3300) 불고기덮밥(1500) 우갈비빔(3500)
목	갈비탕(1500) 순두부찌개(3000) 콩나물볶음밥(1300) 해물덮밥(3500)
금	육개장(1500) 도가니탕(4200) 오징어탕수(1500) 오징어순대(3300)

(단위:원)

■ 지난해 동대신문을 읽고

필요정보 제공 부족 논란쟁점 제시 적절

최근 동대신문이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독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느낄만한 것이 없다.

또 학교내의 소식을 보도하고 기사화하는 것도 좋지만 비판적인 모습이 라든지, 학년마다 관심거리가 다른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목조목 알려주는 점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1302호 동대신문에 수습짜지를 떼고 새로이 정기자로 임명된 10명의 기자분들의 모습이 지면에 소개되었다. 그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포부대로 동대신문을 바꾸어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1303호부터는 더욱 발전하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변지철 (문과대1)

인터넷의 수많은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나는 '회원등록'을 할 때가 많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형식이 그 대부분인데 가입할 때마다 약간의 의심과 불안이 생긴다.

지난호 '통신질서 확립법' 입법예고 논란'에 관한 논단은 의식과 불안으로 그쳤던 나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킨 좋은 계기였다. '통신 질서 확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부와 그에 비판하는 시민 단체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게끔 분석해 놓았다. 그리고 쟁점논란의 성격을 세가지로 분류해서 과연 논란이 되는 중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전유진 (정신대 컴퓨터공2)

'경주사학지' 발간 학교당국 지원 요망

사학(私學)동국은 명문 중에도 명문이다. 그 중 불교분야와 역사·철학관련분야는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유래가 깊어 대학당국의 지원이 특히 요구된다.

그러나 불교분야를 제외한 역사, 철학 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역사·철학 분야는 기초학문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자체의 변화노력과 학교 당국의 지원 없이는 비인기학문 혹은 퇴출학문으로 전락되기 딱 알맞다.

얼마전 학술논문지 발간에 대한 학교 지원 의향을 여쭙러 행정부서에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나 뜻밖의 대답은 각 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사학지가 이렇듯 오랜 세월

순간의 좌절을 미래 성공의 계기로 삼아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가끔게는 우리모두가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수많은 고비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실패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희망은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이제는 너무나 평범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직 우리가 어려워이 닥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누가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야 한다. 그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약광장

앞으로의 선구자적 자세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부총남! 수고하셨습니다. -야야 맞춰봐

그리고...

△인간의 화장실에서 허둥대는 매미를 보았다. 어쩌면 내일 그녀를 볼지도...
△미치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뛰고싶다. 그러나 미치도록 뜬이 없다. 젊음, 패기! 젊음이들의 상징! 잃지말자! 젊음이여~
△모교지를 시작으로 문화의밤 준비비로 한창 바빠질 문화회 식구들, 모두 지화자! 함께 지화자!

-생활문화인
△경식선배! 군대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26개월 짜리 합숙 다녀온다고 생각하세요.
-단풍연 호상
△지영, 진영, 나영 가을엔 좀 더 자주 보자.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거북, 길동
△HR 널 걸렸어.
-JY
△사랑하는 나의 인화, 수환, 지철... 우리 아내부~방송 잘하자~



정보의 바다로... 그곳에 가면 나만의 공간이 펼쳐진다. 새 얼굴로 단장한 동국관 BSC실이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차 있다. 촬영=송광수 동문

핸드폰 돌려주기, 현대인의 에티켓 카풀인심 아쉽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핸드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일은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보았을 직한 일이다.

나도 최근에 핸드폰을 분실한 경험이 있다. 지난달 친구들과 학교 근처 오락실에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중이던 핸드폰을 그냥 두고 나와 버린 것이다. 지하철역에 가서야 생각이 나서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핸드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내 핸드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해 보았지만 처음 몇 번은 발지를 얹더니 나중에는 받아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애원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나와 친구들은 '그 사람은 돌려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았지만,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부주의하게 아무 곳이나 핸드폰을 놓고 나온 나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나 역시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남의 핸드폰을 가져가고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분(?)은 도대체 무슨 심보를 가진 것일까?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잃어버린 억울함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의 행동거지에 대한 실망 등으로 밤에도 잠이 오질 않았다.

그런데 얼마전 한 선배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 선배는 지하철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어느 대학생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 그 대학생은 수업 도중 일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나와 선배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당하지 않았으니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분실한 핸드폰을 주웠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꺼야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현대인의 에티켓이 아닐까?

이 글이 우리의 양심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류인선 (사과대1) 허수임 (인문대 국문2)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미소시루(1300) 호박고추장찌개(1300) 하이리이스(1500) 쇠고기볶음밥(1700)
화	김치양파국(1300) 햄치볶음밥(1600) 짜장면(1200)
수	무채어묵국(1300) 미역두부애민장국(1300) 돈육덮밥(1600) 곰탕(1800)
목	순두부찌개(1300) 제육김치찌개(1300) 돈가스(1500) 참치덮밥(1800)
금	계란파국(1300) 수제비국(1300) 카레리이스(1500) 전주비빔밥(1800)
토	배추국(1300) 김치볶음밥(1600) 칼국수(1300)
일	짬뽕국(1300) 오징어덮밥(1600) 칼국수(1300)

(단위:원)